

분류학상으로는 영장류, 인간에게 문화란 무엇인가

글 | 이문웅

인간의 언어..기술..사회조직..풍습..종교..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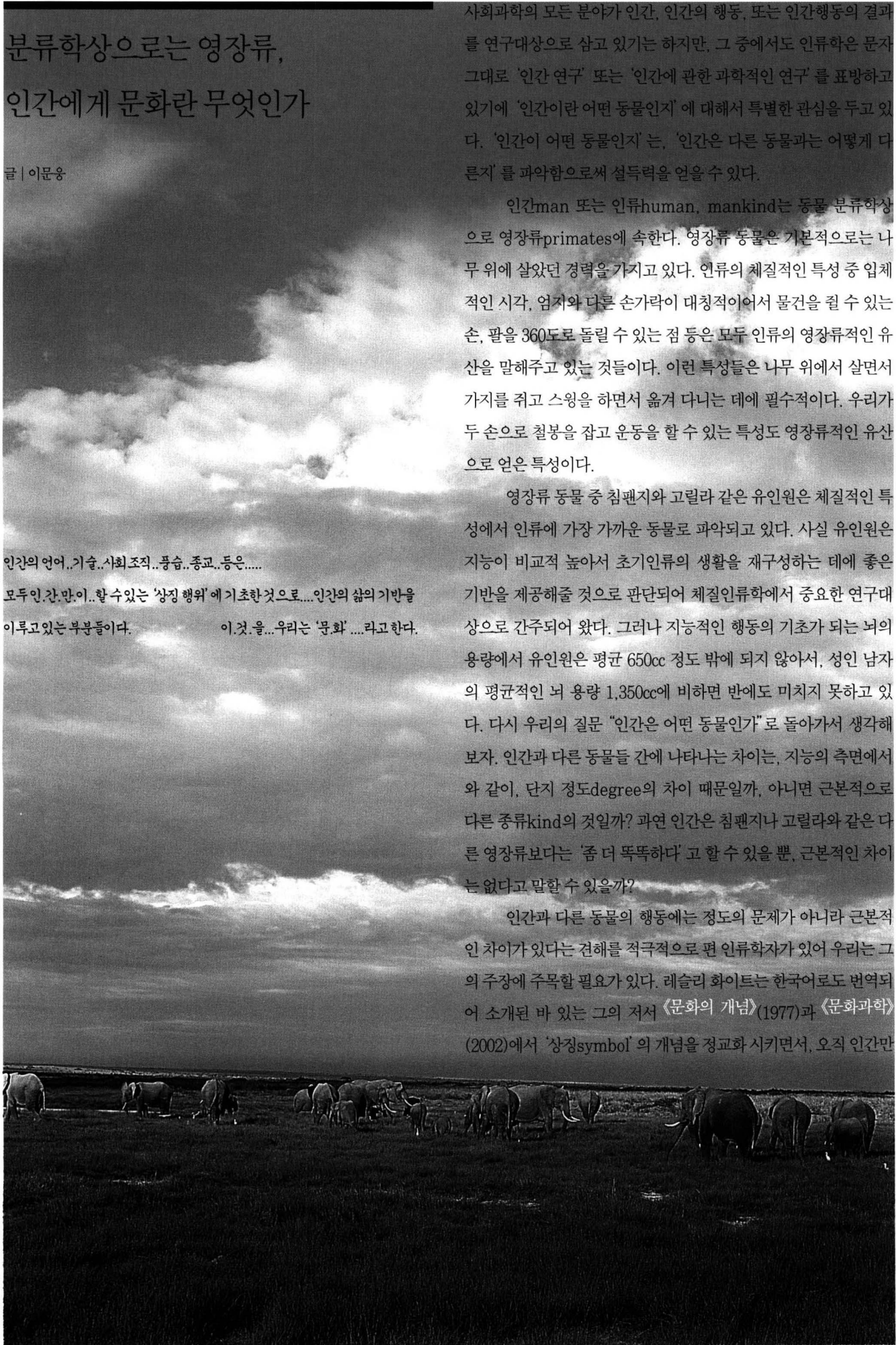
모두인간.만이..할수있는 '상징 행위'에 기초한것으로....인간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있는 부분들이다. 이것.을...우리는 '문화'라고 한다.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인간, 인간의 행동, 또는 인간행동의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류학은 문자 그대로 '인간 연구' 또는 '인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표방하고 있기에 '인간이란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함으로써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간man 또는 인류human, mankind는 동물 분류학상으로 영장류primates에 속한다. 영장류 동물은 기본적으로는 나무 위에 살았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체질적인 특성 중 입체적인 시각, 엄지와 다른 손가락이 대칭적이어서 물건을 쥌 수 있는 손, 팔을 360도로 돌릴 수 있는 점 등은 모두 인류의 영장류적인 유산을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특성들은 나무 위에서 살면서 가지를 쥐고 스윙을 하면서 옮겨 다니는 데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두 손으로 철봉을 잡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특성도 영장류적인 유산으로 얻은 특성이다.

영장류 동물 중 침팬지와 고릴라 같은 유인원은 체질적인 특성에서 인류에 가장 가까운 동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 유인원은 지능이 비교적 높아서 초기인류의 생활을 재구성하는 데에 좋은 기반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체질인류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능적인 행동의 기초가 되는 뇌의 용량에서 유인원은 평균 650cc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성인 남자의 평균적인 뇌 용량 1,350cc에 비하면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우리의 질문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지능의 측면에서와 같이, 단지 정도degree의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kind의 것일까? 과연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은 다른 영장류보다는 '좀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과 다른 동물의 행동에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편 인류학자가 있어 우리는 그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슬리 화이트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는 그의 저서 《문화의 개념》(1977)과 《문화과학》(2002)에서 '상징symbol'의 개념을 정교화 시키면서, 오직 인간만



이 '상징 행위' 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행위를 다른 동물의 행위로부터 구분 짓는 근본 바탕이 되고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화이트는 '상징' 과 '기호sign' 를 구분하고 있다. 즉 '상징' 이란 '사물과 사건에 인위적인 의미를 창조하여 부여한 것' 으로, 그런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기호'란 교통신호나 어떤 작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이 어떤 것이 단지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인간은 상징 행위와 기호 행위 모두를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같은 것이 상징과 기호 양쪽으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인들의 계급장은 단지 그가 속한 계급을 들어내는 기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계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두 동료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막다른 지경에 도달했을 때 "계급장을 떼고 한 판 붙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 계급장은 기호의 차원을 넘어서 '상징' 의 역할을 하기에 계급에 따른 행동수칙을 일단 접고 행동하자는 뜻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오직 인간만이 '상징 행위' 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가 들고 있는 '성수holy water' 의 예는 이런 의미를 잘 전해준다. 즉 특정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수는 보통의 물과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성수의 의미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물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신성한' 영역에 속한다. 만져봐서, 냄새를 맡아봐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떤 과학적인 분석으로도 성수와 보통의 물을 가려낼 순 없다. 기호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다른 동물은 인간이 가르쳐주는 대로, 인간이 부여한 의미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의미는 감각기관, 즉 눈, 코, 귀, 또는 손으로 만져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기호' 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인간의 언어, 기술, 사회조직, 풍습, 종교 등은 모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상징 행위' 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 라고 한다. 이렇게 인간은 '문화적인 행위' 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선천적인, 또는 유전적인 특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전적이고, 비생물학적인 '상징 행위' 에 의거하여 축적되고 전승되어 온 삶의 지혜, 즉 '문화' 가 곧 행동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다른 동물의 행동은 생물학적 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상징행위에 의거해서 행동하기에 인간집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난다. 즉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사회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생활양식에서의 혁신은 내부적인 역학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외부의 다른 집단과의 접촉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사회조직, 관념 등 인간사회의 생활양식에서 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돌연변이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특성이 자연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길이 변화의 유일한 통로이다. 인간은 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세대간에 지혜를 축적해 오면서 오늘과 같은 문명사회를 구축해왔다. 만약 인간이 문화라는 지혜의 샘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식으로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갖지 않은 인간' 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은 출생할 당시에는 누구라도 아무런 문화를 갖지 않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난다. 출생 후 그가 어떤 양식의 문화에 따라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사고의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문화간의 관계는 컴퓨터에 비유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즉 하드웨어로서의 컴퓨터는 운영체제(OS)인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할 없을 것이다. '문화' 는 바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운영체제를 전혀 장착하지 않은 컴퓨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정신이상자에 비유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문화를 갖지 않은 인간' 은 단지 통계적으로는 인구수에 포함되겠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지나간 진화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문화적인 수단' 을 동원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었다. 기술, 사회조직, 종교 등의 문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인류는 생활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진화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다른 동물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만 몰두했다면, 인류는 구성원들간에 또는 집단간에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았다. 이렇듯 인간과 다른 동물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결코 '정도의 문제' 라는 차원이 아니었다. ❧